

추천의 글

순수의 자연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뉴질랜드!

이 나라와의 인연의 끈은 RNE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명한 하늘과 싱그러운 공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나 혼자 여행이 아니었기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은 RNE 그룹의 잘 준비된 일정표 보면서 싱그러운 대기로 날아가 버렸다. 뉴질랜드 내에서 원활한 연락을 위한 연락처와 유심칩, 연수생이 체류할 숙소와 식사 등에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가족처럼 맞이하는 RNE 그룹 직원들의 말과 행동은 11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연수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홈스테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RNE 그룹의 사전 준비로 별 어려움 없이 연수를 끝낼 수 있었다. 연수가 끝나고 몇몇 연수생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홈스테이 주인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소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RNE 그룹의 준비성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식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괜한 걱정이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아야 한다며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을 소개해주어 아주 글로벌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연수를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숙소와 식사가 만족스럽더라도 연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연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RNE 그룹은 놓치지 않았다. 연수 장소에 매일 직원이 상주하여 연수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수 후 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와 성공적인 연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RNE 그룹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RNE 그룹이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에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이세진